

아주대의료원소식 11

2004

통권 제 118호 / 발행일 2004. 11. 1 / 발행인 겸 편집인 김孝皙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3-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포커스1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
- 4 포커스2
의료원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 8 진료교실 어린이 사랑
- 10 의학 리포트
SFRP-3단백질,
뼈 생성 조절세포의 기능 활성화
- 11 AMC NEWS
- 16 건강 Q&A
- 편도선염
- 여아의 자선장증 치료
- 18 병동클릭 분만실
- 20 우리 병원 어떨습니까
나는 아주대병원만 쳐다봐도 기쁘요!
- 21 내가 꿈꾸는 의료인
소중한 메시지, 어느 의사의 행복한
미소
- 22 장기이식은 사랑입니다
간경화의 근본 치료
- 23 협력병원 탐방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 24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26 전문클리닉 소식
- 27 진료시간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역사회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9월에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와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센터」가 개설되어, 그동안의 활동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개소 이전부터 안전·건강문화 확산에 힘써 온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센터」는 오는 11월15일에 Affiliate Safety Community Promotion Support Center 지정 협약식과 국내안전 건강 도시 정책개발을 위한 방안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안전도시 사업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WHO 안전도시 슈반스트롬 협력위원장의 특별 강연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전도시,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사회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퇴행성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개설된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는 지난 9월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에 선정돼 11월 중 경기도와의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연구활동을 기대해 주십시오.





바이오신약 개발의 선두주자,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

노령화사회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퇴행성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경기도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힘을 모았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가 지난 9월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에 선정돼 오는 11월 중 경기도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돈 소장으로부터 향후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 운영계획과 설립 의의에 대해 들어본다.

KRRC - CCDRB

9년 간 총 93억원을 지원받는 대단위 프로젝트

지방화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의 「바이오신약 및 인공장기 개발」 분야에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가 지난 9월에 선정되었다. 오는 11월 중 경기도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협약이 완료되면 앞으로 9년 간 경기도로부터 매년 4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대학지원금으로 4억 원, 수원시로부터 1억 원, 그리고 산업체로부터 1억 3천만 원 등 매년 총 10억 3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퇴행성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주력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의 연구목표는 세포사멸 기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조절하는 약물을 천연물로부터 찾아내어 세포사멸이 주된 원인이 되는 여러 퇴행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질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성 치매, 뇌졸중을 비롯하여, 노인성 감각기 질환, 당뇨병 및 피부색소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대 사망원인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간 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최근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차 노령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의 의학은 퇴행성 뇌질환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법 개발이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들은 세포사멸과 세포생존의 조절기능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세포사멸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약물의 개발은 현재 세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뛰어난 효과와 안정성을 가진 약물의 개발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의 활성화는 국민 건강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초·임상의학, 학제, 산학 간의 협력연구체제 구축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의 연구과제는 크게 3개의 총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총괄과제에서는 신경세포의 사멸을 조절하는 신약개

센터(Center for Cell Death-Regulating Biodrug ; CCDRB)



초연구와 의약연구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질병모델을 이용한 물질의 스크리닝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의학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질병 모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은 매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미 아주대학교의료원 내에 설립된 세포치료센터와 임상연구센터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면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테크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와 아주대의 하모니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의 설립은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41%, 제약

발, 제2총괄과제는 세포사멸을 조절하는 항체 바이오 신약개발, 그리고 제3총괄(산업화)과제는 당뇨병과 색소질환과 관련된 세포의 사멸을 조절하는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의 연구과제는 3년씩 3단계로 추진되며 1, 2단계에서는 주로 해양미생물 대사체와 식물추출물에서 신약후보물질을 도출하며 3단계에서는 후보물질의 산업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센터의 연구과제에는 기초의학분야에서 이영돈(해부학교실, 센터장), 이수환(생리학교실), 강엽(의과학연구소), 손성향(의과학연구소), 장영주(의과학연구소) 및 권명희(미생물학교실) 교수 등 6명, 임상의학분야에서는 이관우(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문성균(이비인후과학교실), 정윤석(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박문성(소아과학교실), 김현준(이비인후과학교실), 안재홍(안과학교실), 강희영(피부과학교실) 및 이필휴(신경과학교실) 교수 등 8명, 그리고 공과대학에서도 김용성(생명분자공학), 조도현(생명분자공학), 박기동(생명분자공학) 교수 등 3명이 참여하여 기초의학과 임상의학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학제간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최대의 성과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에서의 연구와 산업체와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개발물질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내 8개의 제약회사와 협력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의 공동 연구로 경쟁력 확보

새로운 신약후보물질을 찾아내고 이를 약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약개발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하나의 결림돌이 되는 분야는 기

연구소의 64%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약산업 연구개발비의 약 60%를 집행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산업의 중심지이다. 또한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인력이 풍부하며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이외에도 대규모 경기바이오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지역협력 연구센터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아주대학교의료원이 바이오연구의 선두주자로서 당당히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영 돈 소장 / 세포사멸조절신약연구센터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체 연구에 대한 최신 지견을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0월9일 토요일, 별관 대강당에서 10주년을 기념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체 연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의 Stephen T. Holgate 교수와 미국 University of Chicago의 Carole Ober 교수,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Connie Eaves 교수, 독일 University of Leipzig의 Augustinus Bader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하여 만성기도염증 질환에서의 유전체 연구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에 관한 최신 지견을 나눴다.



Symposium I

만성 기도염증의 이해를 위한 유전적 접근

Genetic approach to understanding chronic airway inflammation



아주대학교의료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의 오전 강의는 「만성 기도염증의 이해를 위한 유전적 접근」이라는 제목 하에서 천식과 관련된 유전자 연구에 대한 강의들이 진행되었다. 심포지엄의 강연에는 영국 알레르기 학회지의 편집장이자 학회 회장이며 다수의 천식 및 알레르기 교과서를 집필한 천식 연구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인 Holgate 교수(영국 Southampton대학), 천식과 관련된 유전자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미국 시카고대학 유전학교실 주임교수인 Ober 교수, 순천향대학교 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과장이자 유전체연구센터 책임자인 박춘식 교수, 그리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주임교수이자 약물유전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해심 교수가 연자로 참여하였다.



Ober 교수는 「천식과 연관된 유전자의 규명」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천식은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잡하게 작용하는 질환으로, 유전적인 요소는 상당히 많은 유전자 부위들이 천식을 발생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환경적 요소들이 특별한 유전자와 작용하여 천식의 위험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천식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환경적인 요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Stem Cell Therapy and Genomic Research



변이를 최소화한 특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유전자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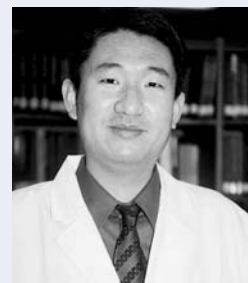
Holgate 교수는 강의에서 천식은 기도 만성염증과 더불어 이에 따른 기도의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질환으로, 특별히 만성 천식은 기도 상피세포가 잘 손상되고 복구가 잘 되지 않아서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과 성장인자들로 인해 기도 상피하부 조직의 섬유화를 초래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천식환자의 기도 상피세포의 사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 유전자로 「Muc 8」을 규명하였음을 소개하였고, 천식에 있어서 기도과민성과 폐기능의 감소는 기도의 세포외간질에서 평활근이 증가하고 섬유조직의 침착이 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현상임을 설명하였다. 최근에 기관지천식의 기도과민성과 연관된 유전자로 보고한 「ADAM33」의 유전자 변이가 기도 세포에 영향을 주어 평활근의 수축과 비대를 초래하여 기도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폐기능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ADAM33 유전자가 기도과민성과 기도개형에 중요한 감수성 유전자임을 시사하였다.

박춘식 교수는 「천식에서 chemokine 유전자의 변이」라는 제목으로 천식의 병인기전에서 기도 염증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chemokine 관련 유전자 중에서 「eotaxin」과 「CCR3」 유전자가 천식과 연관된 유전자임을 규명하였음을 소개하였다.

박해심 교수는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의 유전자적 접근」이라는 제목 하의 강의에서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은 아스피린 과민성, 기관지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비용종 등을 포함하는 임상적 증후군으로 류코트리엔의 과다 생성으로 병인기전을 설명하고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임

을 설명하면서, 류코트리엔의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유전자 변형과의 연관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 환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인 HLA DPB1*0301이 중요한 유전자 표지자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유전자 변이들은 천식치료제인 류코트리엔 길항제의 요구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HLA DPB1*0301을 가진 환자들에서는 류코트리엔 길항제의 요구량이 증가되어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번 강의로서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천식과 관련된 유전자 연구의 개요를 한자리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양질의 유전자 연구들이 진행되고 또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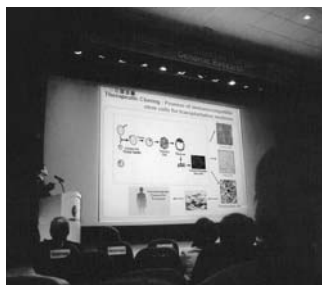
남 동 호 교수 /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International Symposium on Stem Cell Therapy and Genomic Research

Symposium II

줄기세포 치료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insights of stem cell therapy



오후에는 「줄기세포 치료의 임상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국외 연자 3명과 국내 연자 2명의 발표가 있었다.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연구기관에서 줄기세포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된 바 있으나 이번 아주대학교의료원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은 기초과학의 수준을 벗어나 임상적인 효용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되었다.

줄기세포는 세포의 분리시점과 분화능력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분류된다. 배아줄기세포는 발생초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세포로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세포이다. 반면에 성체줄기세포는 태아에서 뿐만 아니라 아기가 출생한 후에도 남아 있으면서, 성장에 필요한 세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질병이나 사고 후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재건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체줄기세포는 일정한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안전성이 뛰어나 임상에의 응용이 용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신 정해진 세포로만 분화하므로 응용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는 배아 줄기세포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첫째 연자로 최근 세포핵치환을 통하여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를 얻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황우석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초빙하였다. 수정란으로부터 배아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은 1998년 위스콘신 대학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으나, 난자의 핵을 자기 몸의 세포의 핵으로 치환하여 체세포와 동일한 유전형을 지닌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은 황우석 교수팀에 의하여 최초로 소개되었다. 핵치환 기술은 쥐, 양, 소와 같은 동물에서는 가능하나 사람의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번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매우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효용성과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배아줄기세포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하지만 핵치환 기술은 환자와 유전형이 동일하여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분화능이 매우 넓은 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사 당일 황우석 교수가 UN회의에 급히 참석하게 되어, 황우석 교수를 대신하여 강성근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소개한 점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



두 번째로 Connie Eaves 교수(캐나다 British Columbia 대학)가 골수의 조혈줄기세포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Eaves 교수는 현재 Terry Fox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캐나다의 줄기세포 국책과제의 책임자로서 줄기세포의 연구의 선두를 지휘하고 있다. 조혈줄기세포는 현재 골수이식을 통하여 임상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줄기세포로서, 타 줄기세포 연구의 초석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러 가지 세포치료의 임상적용이 가시화되면서 면역거부반응을 제어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혈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Eaves 교수는 증식능력이 지속적이고 분화능력이 뛰어난 그룹(LTRC)과 일정기간만 증식할 수 있으며 분화능도 다소 제한된 그룹(STRC)으로 구분하였다. 혈액종양 경우에는 관해유도요법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혈액세포를 제거시키고 정상조혈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두 종류 세포가 모두 필요하나 선천적 적혈구의 결함(겸상적혈구 빈혈, 지중해성 빈혈)처럼 관해유도요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식능력을 지닌 LTRC가 효과적임을 소개하였다. Eaves교수는 환자의 선천적 결함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개하였다.

이어 Augustinus Bader 교수(독일 Leipzig대학)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기능을 갖춘 인공장기로 만드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Bader 교수는 고분자 물질로 세포의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지지구조(scaffold)를 이용하여 배양이 쉽지 않은 간세포를 400g 정도 되는 크기로 배양시킬 수 있는 간세포 배양기를 제작하고, 이를 일시적인 간기능부전 환자에서 간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인공 간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소개하였다. 또 세포에 생체와 유사한 압력을 주는 장치를 개발하여 심장관막을 제작하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Bader 교수는 현재 세계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의 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의학과 공학을 접목시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직공학의 선두를 달리는 아주대 의대의 민병현 교수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연골을 제작하는 기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민병현 교수는 연골이 체중을 받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연골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세포를 초음파로 자극하면 연골분화 유도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연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값비싼 연골분화 유도제를 사

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어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현 교수는 현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세포치료센터의 소장 직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경과학자인 Takahashi 교수(일본 교토대학)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파킨슨씨병의 치료가능성을 소개하였다. 파킨슨씨병은 뇌의 도파민의 농도가 저하되어 나타나는 병으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의 분화유도가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국내외적으로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만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Takahashi 교수는 동물 실험모델로 사람과 가장 유사한 원숭이를 이용하였으며, 세포이식 결과 뇌기능이 개선된 것을 PET 등의 최신 의학 영상기술을 이용하여 증명했다는 점이 매우 돋보였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연구는 의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의 연자를 초빙하여 최신 연구동향과 임상예의 응용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아주대의료원 내 세포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과 국외의 탁월한 연구자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교류는 올해 8월에 설립된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세포치료센터가 동남아의 세포치료센터의 허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 해 영 교수 / 해부학교실



아이의 목이 왜 한쪽으로 기울까요? (어린이



▲ 헬멧치료

사경이란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얼굴은 반대 쪽을 향하고, 이차적으로 두개골, 얼굴, 척추의 변형이 동반될 수 있다. 신생아의 약 0.3~1.3%의 빈도로 발생하며 서양에 비해 중국 등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경우에 사경을 의심하는가

아기의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얼굴은 반대 방향을 향하며, 목이 기울어진 어깨 쪽으로 얼굴을 돌리려고 하면 아파하며 울기도 한다. 아동이 한쪽으로만 얼굴을 돌리고 있으므로 많은 경우에 두개골의 변형이 동반된다. 선천성 사경의 약 2.4~10%에서 선천성 고관절 이형성을 동반하므로 이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왜 목이 한쪽으로 기울까

어린이 사경의 약 50~60%는 한쪽의 흉쇄유돌근이 방추형으로 뭉쳐있고 길이가 짧아져서 목이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것이 가장 흔한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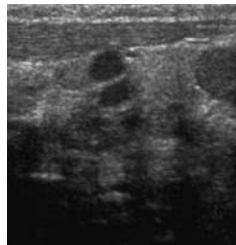
또 약 35%에서는 한쪽의 흉쇄유돌근의 비정상적인 섬유화로 근육의 길이가 단축되어 사경이 나타난다.

눈의 사시에 의해서도 사경이 생길 수 있으며, 기타 경추의 구조적 이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사경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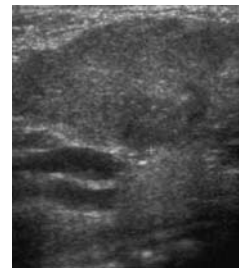
약 10~20%에서는 흉쇄유돌근에 이상이 없고 기타 다른 사경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이 사경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를 자세성 사경(postural torticollis)이라고 한다.



▲ 좌측 흉쇄유돌근(←)



▲ 정상 흉쇄유돌근



▲ 방추형으로 뭉쳐있는 흉쇄유돌근

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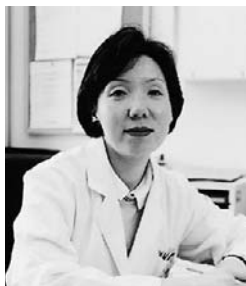
▲ 홍쇄유돌근의 신전 운동

사경의 치료

사경이 의심되면 되도록 빨리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이차적인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축되어 있는 홍쇄유돌근의 신전 운동 및 마사지 등을 통하여 치료한다. 운동치료 만으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최근에는 보톡스라는 약물을 홍쇄유돌근에 주사한 후 운동 치료를 시행한다. 이상의 방법으로 호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수술 치료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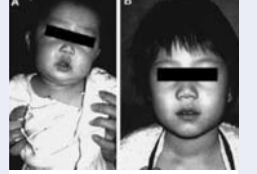
자세성 사경에서는 홍쇄유돌근의 단축이나 저항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전 운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천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함께 시행한다. 두개골 변형에 대하여는 헬멧을 이용한 교정치료를 시행한다.



임 신 영 교수 / 재활의학교실

재활의학과 어린이 사경클리닉



▲ 치료 전

▲ 치료 후

재활의학과 어린이 사경클리닉에서는 1994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약 250명의 사경 어린이를 치료하였다.

홍쇄유돌근의 이상으로 인한 사경의 경우 주 3~5회의 통원 치료로 90%의 치료 성공율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 기간은 평균 두 달이었다. 최근 어린이 사경클리닉은 자세성 사경 아동을 대상으로 내이(inner ear)에 위치하는 전정 기관「평형 감각기」라고도 한다)의 기능의 이상을 측정하는 전기진단검사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보톡스 주사 요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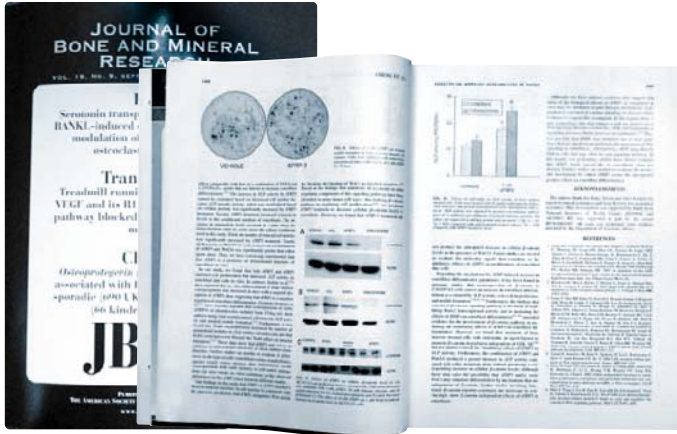
문의 전화 : 031-219-5802





SFRP-3 단백질, 뼈 생성 조골세포의 기능 활성화

- 골다공증 치료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정운석 교수가 SFRP-3(Secreted Frizzled Related Protein-3) 단백질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밝히고, 골다공증 치료에 유용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과학자들에 의해 단순히 중배엽 조직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던 SFRP-3는 그 기능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에 정운석 교수가 미국 로마린다 대학(Loma Lind University, California)의 Dr. Mohan 실험실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SFRP-3 단백질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밝혀낸 것.



정운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쥐의 골수에서 분리한 기질세포 배양실험에서 SFRP-3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와 투여한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조골세포의 분화시 나타나는 알칼리성포스파타제 효소가 SFRP-3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는 30mU/mg protein, 투여한 경우는 58mU/mg protein으로 약 2배 증가하고, 오스테오칼신 단백질 농도는 각각 8ng/mL과 28ng/mL으로 약 3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석회화 결절의 수가 SFRP-3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19개, 투여한 경우에는 25개로 약 3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SFRP-3가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SFRP-3와 함께 중배엽에서 발견된 SFRP-1이 조골세포 기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SFRP-3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추측되어오던 가운데, 기존의 추측과는 정반대로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밝혀져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SFRP-3의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면 골다공증 치료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골대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잡지인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04년 9월호에 게재되었다.

의료원 ▶▶▶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독감예방 접종 실시



의료원은 지난 10월17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수원 지동 제일교회에서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종양혈액내과 최진혁 교수를 비롯하여 총 12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중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진찰하고 환절기를 맞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 200여 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



제1회 천식 및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건강걷기 대회 개최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는 지난10월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천식 및 알레르기 환자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걷기 대회에는 천식 및 알레르기 환자와 가족, 일반인 등 총 100여명이 참여, 병원 잔디 및 아주대학교 교정 일대를 걸으며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교수는 「좋은 공기를 마시며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10월 교직원 월례회 실시

의료원은 10월27일 수요일 오후 5시 별관대강당에서 10월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 1부에서는 9월 모범교직원으로 선정된 진단검사의학과 김대연 기사와 2004년 영어회화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학팀 동현숙, 간호부 가진희, 이미순, 소아과 유경화 직원을 시상했다.

또한 2부에서는 아주대학교 대학원 우주계측정보공학과 김두환 교수를 초청하여 「우주탄생과 우주개발」이라는 주제로 교양특강을 실시했다.



의료원 · 소방서 합동 모의소방훈련 실시

의료원은 지난 10월26일 화요일 오전 11시 화재 또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수원남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소방훈련에서는 의료원 자위소방대 100명과 소방서 지원 인력 40명, 구조차, 굴절차, 고가차, 펌프차 4대, 화학차, 탱크차 등 차량 10대 등의 장비가 동원되어 환자대피 훈련을 비롯하여 화재신고, 자위소방대의 초기진압 훈련, 피난대피 완강기 훈련, 소방서활동 및 구조구급대 훈련 등 전과정에 걸쳐 실제상황과 동일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별관 증축에 따라 학생 기숙사 입소율 43,2%로 증가



의료원은 별관 증축이 완료됨에 따라 증설 공간 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증설된 공간은 서측의 총 48실로, 연구의사실과 Staff 당직실을 각각 5실로 늘리고, 의학부 및 간호학부 기숙사를 기존의 36실에서 50실로 증설, 학생 기숙사 입소율이 31.1%에서 43.2%로 증가된다. 또한 6실을 의학부 OSCE/CPX ROOM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동측 별관의 경우 1층은 진료 및 교육공간으로, 4층은 병원장실 및 병원장 산하 행정 및 간호부서, 5층에는 의료원장실 및 기초실 산하부서와 비전사무국, HIS 사무실, 경리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



2004학년도 교수 워크숍 개최

의과대학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한 오션캐슬 리조트에서 2004학년도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교수 워크숍에서는 제일은행 고득성 PB팀장을 초청하여 「정년 이후를 대비하는 노후대책」에 관한 강연과 아주대학교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김두환 교수를 초청하여 「우주의 진화와 지구(인류)의 운명」에 관한 초청강연을 실시했다.

또한 김효철 의료원장 및 소외영 기획조정실장, 문창현 학장이 참석하여 의료원 현황 및 의과대학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시 합격생, 의료원 견학 및 실습 교육 실시

의과대학은 2005학년도 의학부 수시 1차 합격생 4명(김경모, 김민수, 서의중, 이한동)을 대상으로 지난 10월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의료원 참관 교육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 행사는 수시합격생들이 입학 전 병원 및 의과대학을 미리 체험해 보고 의과대학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수시 합격생들은 2주간 의료원에서 제공한 숙소에 머물면서 순환기내과, 외과, 진단방사선과, 뇌질환연구센터를 순회하며 참관 교육을 받았다. 교육시간 이후에는 의과대학 동아리 체험, 수시합격 출신 선배와의 만남,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탐방 등의 시간도 가졌다.



유희석 주임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을 포함한 산부인과학교실 교원 각종 상 수상

산부인과학교실 유희석 주임교수가 지난 10월23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개최된 제90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부인종양 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1년간 국내외 의학잡지에 게재된 산부인과 관련 논문 중에서 학회 학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상으로, 유희석 교수는 자궁내막암 침윤기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Cancer Letter, Gynecologic Onc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ic Cancer 등에 게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한 논문의 제목은 「Effects of hepatocyte growth factor on the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s and their tissue inhibitors during the endometrial cancer invasion in a 3-dimensional co-culture」이다.

한편, 산부인과학교실 양정인, 김행수 교수팀의 임윤경 연구강사가 지난 10월8일 개최된 제7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연구논문은 「완전 전치 태반에서 초음파 검사상 보이는 반월상 열공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논문이다.

한편, 산부인과학교실 양정인 교수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연구 및 진료 성과를 인정받아 마르퀴스사에서 발간하는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 2004~2005 년판에 등재됐다.



도서기증에 감사합니다

-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가 「Progress in the Management of the Menopause」 외 2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 인문사회의학교실 이종찬 교수가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외 단행본 7권, 「보건행정학 회지」 외 날권저널 58권을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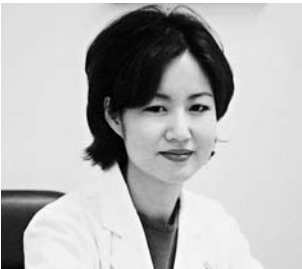
신호준 주임교수, 대한기생충학회 학술상 수상

미생물학교실 신호준 주임교수가 제46회 대한기생충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대한기생충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기생충학회 학술상은 기생충 분야에서 최근 5년간 뛰어난 연구업적과 논문을 많이 발표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신호준 주임교수는 2001년에 Journal of Eukaryotic Microbiology에 발표한 논문, 「Molecular 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a Gene Encoding a 13.1 kDa Antigenic Protein of Naegleria fowleri」를 비롯하여 국내외 24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이번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구소 ▶▶▶



최소연 교수, LG 생명과학산학협동연구비 수혜

순환기내과학교실 최소연 교수가 최근 대한순환기학회로부터 LG 생명과학산학협동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됐다.

최소연 교수는 1년간 연구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프로테오믹 분석을 통한 관동맥중재술시 무재관류(no-reflow)와 연관된 체액인자의 규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병원 ▶▶▶



혈액투석환자를 위한 혈관유지 One-Stop 서비스 실시

외과에서는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혈관 유지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혈관유지 One-Stop 서비스란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의 자가 또는 인조 혈관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1회 방문으로 진단, 검사, 치료 및 수술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통합시킨 새로운 진료모델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문하는 환자는 당일 모든 절차를 마치고 귀가할 수 있으며, 진료의뢰센터를 통해 외과 오창권 교수에게 예약하거나 외과 외래로 내원하면 된다.

〈 문의 : 외과 외래☎ 031-219-5758〉

온누리회, 소아암 환아를 위한 가을운동회 열어



소아암 환아가족 모임인 온누리회는 지난 10월16일 토요일 오전 11시 체육관 뒤 잔디밭에서 가을운동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홍창호 병원장을 비롯하여 소아과 박준은 교수, 중앙혈액내과 박준성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6층 서병동 간호사들의 축하공연을 비롯한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보험금 지급 상담 및 지급창구 개설

병원은 민간보험이 확대되고 아주대병원의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 건수가 월 900건 이상에 달함에 따라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상담 및 보험금 지급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원 1층 외래 17번 창구에 「삼성생명 private보험금 지급상담 및 지급창구」를 개설, 2004년 11월1일부터 운영한다.

창구 운영은 삼성생명 파견인력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1년간 시범운영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전화 : 031-217-1908

간호부, 2004년도 주임간호사 MT 개최

간호부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주임간호사의 역할 정립」이란 주제로 2004년도 주임간호사 MT를 개최했다.

간호부 주임간호사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22일부터 23일 1박2일간 용인시 소재 KNA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MT에서는 ▲ 주임간호사의 역할(김호심 간호부장) ▲ 아주대학교병원의 현재와 미래(홍창호 병원장) ▲ 주임간호사가 만들어가는 조직 활성화(김찬배 씨테크연구소장)에 대한 특강에 이어 분임토의를 가졌다.

신문 ·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0.5	국민일보 세계일보	김효철 의료원장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10.6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조기검진 권하는 사회 환자가 고객입니다
10.6	한겨레	산부인과 양정인 교수	산후체조 매일매일 뱃살에 이별을 고했음
10.6	경인일보	김효철 의료원장	아주대의료원 개원 10주 9일 국제 심포지엄
10.7	경기일보	비노기와 김세중 교수	암을 이기자(8) - 방광암
10.7	중부일보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수능 40일전, 신라강 심어주는 태도 중요
10.8	헤럴드경제	김효철 의료원장	줄기세포... 국제 심포지엄
10.19	조선일보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응급의학과 정윤석 교수 응급의학과 민영기 교수	마리투너 갑자기 의식 잃으면 4분내 도착, 8분내 소생 목표
10.19	경향신문	이비인후과 문성균 교수	보청기 실패하고 고르는 법
10.20	동아일보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희귀질환 무관심에 두 번 울조
10.20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건강검진병원 자주 바꾸면 이전기록 놓쳐 오관할 수도
10.21	경기일보	중앙혈액내과 박준성 교수 중앙혈액내과 정준호 교수	암을 이기자(9) - 백혈병
10.25	조선일보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응급의학과 정윤석 교수 응급의학과 민영기 교수	하늘엔 응급헬기 안전마리톤
10.27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의사도 예측 힘든 뇌대 후유증
10.28	경기일보	비노기와 김세중 교수	암을 이기자(10) - 전립선암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0.9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해님 언니, 달님 동생
10.11	SBS 건강스페셜	중앙혈액내과 임호영 교수	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
10.14	EBS 라디오 부모의 시간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난청
10.25	YTN 뉴스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희귀질환자 '대모'
10.26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분비내과 정윤석 교수	자연이 준 보약(3) - 햇빛
10.28	KBS 세상의 아침	외과 오창권 교수	장기이식 비상! 불안한 중국원정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편도선 치료제를 먹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Q 36세 남성입니다. 두 달 전 몸살감기를 앓고 난 후부터 조금만 피곤하면 편도선이 붓고 목이 아픕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지지만 이를 정도 지나면 편도가 다시 붓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부분의 편도선염은 세균성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열을 동반한 몸살감기 증상과 편도가 심하게 붓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문의하신 분의 경우 급성편도선염이 자주 재발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급성편도선염이 발생되었을 때는 충분한 항생제 치료와 편도에 대한 국소치료가 필요한데,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지 못한 경우 자주 재발하면서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편도선염이 발생한 경우 자주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하고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편도선염이 계속 반복된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반복되는 편도선염인 경우 다른 병과의 감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비인후과 김 철 호 교수 〉

이비인후과 외래 031- 219-5717

키 작은 여아의 초경을 늦추는 주사제가 있다던데요!

Q 10살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12월생인데 현재 키가 125cm로, 반에서 제일 작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고 가슴 발육이 시작됐습니다. 1년 정도 후면 초경을 할 것 같은데, 사춘기가 되면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 하여 걱정입니다. 초경을 늦출 수 있는 주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A 문의하신 분의 따님의 경우 키가 작으면서 사춘기는 조금 빨리 온 경우가군요.

사춘기가 빨리 올 경우 최종적인 어른 키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성장호르몬과 사춘기억제호르몬을 같이 주사하면 최종 어른 키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억제호르몬만 주사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성장호르몬과 함께 주사하는 것 보다 떨어집니다. 성장호르몬은 매일 집에서 맞아야 하고 사춘기억제호르몬은 4주에 한 번 맞습니다.

성장호르몬의 비용은 체중이 30kg 정도일때 1년에 1000만원 정도, 사춘기억제호르몬은 체중에 관계없이 1회에 25만원 내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성장관과 신체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아과 황진순 교수 〉

소아과 외래

031-219-5619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
러
분
의
참
여
를
기
다
립
니
다

■ 건강 Q & A / 나의 건강상식은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 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 Zoom & Zoom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3-721)
- 이메일 apr@ajou.ac.kr



탄생의 숭고함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곳,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입니다.』

울망졸망한 어린 생명체를 보는 가족들의 눈에선 놀라움과 기쁨의 눈빛이 묻어난다. 새 생명의 탄생 앞에 숭고하고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런 역동성과 활기참이 충만한 이곳, 바로 분만실이다.

산모와 태아를 동시에 보살피야 하기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생명이 태어난 순간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지녀야 하는 전인적 간호가 요구되는 곳이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 힘주세요!』 진통 막바지에 접어들어 곧 분만을 앞둔 산모 옆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힘줄 때 하는 말이다. 밖에서 들을 때는 무슨 소리가 싶기도 하지만 이제 커다란 결실이 눈앞에 임박한 이들에게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순간이다.

어디 의료진들 뿐이라. 안에서 만큼이나 초조하고 긴장된 순간을 보내는 이들이 바로 산모의 가

산부인과 김행수 교수가 말하는 분만실



산부인과 의 진료는 분만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분만과정은 여성이라면 거쳐야 할 중요한 관문임에 틀림없고, 이를 바로 곁에서 지켜주는 곳이 분만실이다. 전임 이화숙 수간호사로부터 현 허문희 수간호사가 이끌고 있는 10명의 간호사들은 산모들에게 내 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내 가족과 같은 대우를 행하고자 일상불란한 간호체계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

요즘은 나라전체가 저 출산 현상으로 분만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고 진행되는 분만실 업무의 특성상 그 어느 분야보다 힘든 부서임에 틀림없다. 분만 외에 장기 입원중인 조기진통 산모들에게는 지속적인 집중과 관찰간호를 하고, 응급실에서 올라온 환자를 위해서는 작은 수술 건까지 말아야 하며, 조기양막파수나 비수축검사 등 외래 환자의 검사도 분만실에서 시행하기도 하며, 자간전증이나 내외과적 질환 등을 동반한 고위험 산모들에게는 분만전후나 수술전후에 중환자실의 역할까지 해내는 특수부서임에 틀림없다. 눈에 보이는 것 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분만실 식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파이팅!

분만실



족들이다. 새 식구를 기다리는 이들의 눈 속엔 아기와 엄마를 염려하는 간절함이 가득 배어 나오는데, 아기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어떤 시인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는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최초로 『응애응애』 하고 터뜨리는 울음소리」라고. 모든 인간은 위대한 시 한편을 쓴 셈이다.

그러나 분만실이 단순히 분만의 기능으로 기쁨만 있는 곳이라면 좋겠지만 조기진통, 임신 중독증, 전치태반, 유산 등으로 약물을 쓰며 관찰해야 하거나 분만 및 수술 후 합병증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분만실은 분만산모부터 고위험 임신부들을

관리하는 곳이라 응급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며 더 더욱 존각을 다루는 문제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환자들 때문에 의료진과 타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곳이다.

이렇듯 여성의 일생중 하나의 큰 부분인 임신과 출산,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더 나아가 가족의 안녕을 위해 분만실 식구들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만실은 언제나 그들로 인해 활기차다.

고미화 간호사가 말하는 분만실



옛날에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바로 벗어 놓고 한 번 쳐다본 다음에 들어갔다고 한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내가 과연 아기를 낳고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출산이라는 것은 새 생명 탄생의 기쁨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오버랩되는 것이다. 그러한 산모들이 누워 있는 분만실. 하지만, 3차 진료기관이기에 우리 분만실에는 고위험 산모나 중환자가 많다.

출산 예정일이 아직 멀었는데 조기 진통으로 진통억제제를 쓰며 가슴 조이며 하루 하루를 보내야 되는 산모들, 임신중독증으로 산모와 태중의 아기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계속적인 집중간호를 받아야 하는 산모들, 여러 사연으로 임신 유지가 어려워 임신중절을 해야 하는 가슴 아픈 산모들. 이렇게 다양한 산모들이 모여 있는 곳이 분만실이다. 그러다 보니 산모들은 예민해져 있고, 그 산모들에게 우리들은 조심스럽게 말 한 마디 한 마디 건네며 다가간다. 분만실은 또한 산후출혈과 수술 후 혹은 응급실을 경유하여 온 응급 및 집중관리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기도 하다.

오늘도 이 곳 분만실에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들이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신속하고 숙련된 노하우로 그들이 무사히 분만 진행과정을 마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나는 아주대병원만 쳐다봐도 기뻐요!

지난 달 아사모(천식·알레르기환자모임)가 처음 모임을 가졌다.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던 분들이라 모임 결성을 모두 기뻐했다. 이날 모임에서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교수님께서 알레르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동안 연구하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서로 경험을 얘기했는데, 특히 배금순 씨가 투병생활의 지혜를 자세히 설명해 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사모는 선생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환자끼리 좋은 정보도 교환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서로 위로도 받고 기쁨도 나누기 위한 모임이다. 모임의 회장은 제일 연장자인 내가 맡게 되었고, 여자 부회장은 배금순 씨가, 남자 부회장은 이민우 씨가 맡게 되었다.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다음 모임은 11월 10일 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내 나이 62세. 돌아보면 지난 25년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환자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들겠지만, 숨 못쉬고 잠 못자는 고통은 정말 힘들었다. 내가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 수는 한의원까지 포함하면 43개나 된다. 서울에 소재한 큰 병원 몇 군데와 수원에 크다는 병원에서는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철창 속에 들어가 정신과 상담도 해보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니, 이번에는 병명이 「약 거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집에서는 곳이라도 해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내가 교인으로서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건강 서적 몇십 권을 읽었다. 또, 건강 전문가라는 사람도 만나보고 건강 식품도 사서 먹어봤다. 민간요법을 한다는 돌팔이들에게도 속아 보았다. 지친 나는 삶을 포기 하다가피 했다. 체중이 30kg이 줄어서 뼈만 남았다. 숨이 막혀 응급실에서 깨어나길 여러 번, 119 구급차를 수없이 탔다.

증세가 몹시 심하던 날 밤, 딸이 「엄마,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분의 딸이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교수님께 치료 받고 좋아졌대요. 알레르기 명의시래요. 우리 아주대병원에 가봐요!」

그 밤에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선생님은 「진작 오시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느냐」면서 「이제는 병을 고치고 편하게 사세요!」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약이 편하지 않아요」하면 약이 안맞을 수도 있다면서 몇 번씩 약을 바꿔가며 치료하시는 선생님, 지금은 내게 꼭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잠도 잘자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악몽 같은 생활이었다.

따뜻하고 인정 많고 심성 고운 박해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입원하는 동안 나를 편안하게 했던 병동 간호사님들, 매달 방문하는 외래, 폐기능 검사실 간호사님들의 한결같은 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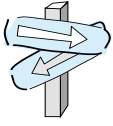
함과 밝은 모습에 이전 가족같다는 느낌이 든다. 또 아사모의 모임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신현정 간호사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 공기도 좋고 푸르른 정원과 뒷산 수목들, 봄이 오면 온갖 꽃들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운 아주대병원이 너무 좋다.

언젠가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 중에서 전라도에서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아주대병원에 와서야 완치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됐다는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가 늘 하던 말이 생각난다. 「나는 아주대병원만 쳐다봐도 기뻐요!」



이수옥님 / 아사모 회장



소중한 메시지, 어느 의사의 행복한 미소

내가 처음 의사의 꿈을 가졌던 시기는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반 친구가 어느 날 내게 다가와서 갑자기 『우리, 커서 의사되자!』라고 말했고, 나는 그냥 『그래, 그러자.』라고 대답했었다. 그 후로 이 「의사」가 이유 있는 꿈이 된 건 고등학교 때였다. 한번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장차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자라면서 내가 받고 누렸던 그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 8개월 간의 인턴생활 동안 내가 환자와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많이 나누었는지 잠시 돌아보니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었더라도 많은 시간을 환자보다는 나를 위해 보냈던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물론 지금은 내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실력을 쌓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때이지만 의사로서 인턴으로 속해있던 각 과의 환자들을 더 많이 위하고 챙겨야 했었는데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의사라는 직업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스스로 할 만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때로 수면부족에 체력마저 떨어질 때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거기에 의사에 대한 좁지 않은 사회적 시선들, 왜곡된 편견들로 인해 많은 의료인들에 대한 오해가 컸기에 들려올 때에는 참으로 의사는 더없이 힘든 자리임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그만큼 거는 기대치가 높고 의사라는 이름이 져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학창시절에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강조하셨던 신경외과 교수님이 계셨다. 높은 신분일수록 도의상의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스스로 의사가 높은 신분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

다. 다만 의사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늘 잊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이다. 처음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처럼 환자를 위해 내 삶을 다하고 싶다.



얼마 전, 사모아제도에서 국제협력의사로 살아가는 소아과 의사선생님의 삶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난 새삼 많은 것을 느꼈다. 학창시절에 소망했던 의사로서의 내 모습을 한동안 나도 모르게 잊고 지내왔음을 깊이 반성하며, 헌신과 봉사 그리고 나눔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비록 그 분은 현대 문명이 주는 풍요와 유익은 누리지 못하고 계셨지만 해맑은

사람들 속에서 밝게 웃던 그 행복한 미소는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내가 꿈꾸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턴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작은 꿈의 씨앗의 싹을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약한 상황에 처한 갈급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의술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삶에 웃음을 찾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먼 훗날 후학들에게 비취길 내 모습을 그리며, 오늘도 「환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의사가 되리라」 깊이 다짐해 본다.

조혁 / 인턴



간경화의 근본 치료

간경화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간장의 섬유화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병인데, 이 단계에서는 약물치료만으로 굳은 간을 정상으로 돌이킬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가 가장 많으며, 간경화가 진행되면서 간암으로 발전되기도 하므로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게 된다. 일단 간경화가 있는 경우 근본적인 치료는 정상적인 새로운 간을 이식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간이식은 오랜 시간의 마취와 복잡한 수술과정을 통하여 굳어진 간을 제거하고 건강하고 새로운 간을 이식하는 수술 치료로, 수술 후 회복이 원활하여야 건강한 생활을 찾을 수 있다. 수술 후 무난하게 회복하려면 수술 전 환자의 전신상태가 가장 중요하며, 회복하는데 필요한 체력이나 저항력, 상처가 아무는 생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수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간경화 환자는 근본적인 치료인 간이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시기를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간경화가 있는 환자나 가족들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이 있어 생명이 위독해져야 비로소 이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의 수술은 작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도가 크며, 수술 후 환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물며 간을 바꾸는 대수술을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지 이식 수술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고, 꺼져 가는 생명을 방치할 수 없어 수술을 시도해 보기는 하나, 수술 후 회복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는 어느 나라, 병원, 의료진에 관계없이 환자 스스로 처해 있는 수술 전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이다. 필자가 버지니아 주립대학 이식외과 전임의로 근무했을 때, 수십 명의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비교적 수술 전 양호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었다. 반면, 말기 환자

의 경우는 그 회복기간도 길고 잘 회복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예도 더러 있었다.

우리나라의 간경화 환자들은 간이식에 대하여 매우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한 두 번의 합병증을 경험한 환자도 당장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근본적인 치료를 꺼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식은 마취와 수술의 위험도를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경화는 시간이 지나

면서 호전될 수 없는 질환임을 감안하면 상태가 더욱 나빠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 간경화로 인한 검사 소견이나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간이식이라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도록 이미 법률로도 정해져 있으며, 아주대학교병원에서도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 간이식이라는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번이라도 황달, 복수, 복막염, 간성혼수, 토혈 등의 간경화 합병증이 있었거나 검사 상 혈중 알부민 저

하, 혈액 응고인자의 저하가 확인된 환자는 서둘러 간이식이라는 근본적인 치료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겠다. 아주대학교병원 3층 장기이식 상담실(031-219-5547)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언제나 열려있다.



오 창 권 교수 / 외과학교실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기증 TFT ·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공공진료에 최선

1910년 9월5일, 관립 수원자혜의원으로 개원한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은 1988년 11월에 경기도립 수원의료원으로 전환하였고 1992년 12월24일에는 신흥동에서 현재의 정자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132병상, 42실, 11개과를 두었다. 현재는 중환자실 10병상, 인공신장실 14병상 등을 확충하고 기존의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건강관리과, 치과, 마취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11개 진료과 이외에 안과, 이비인후과를 신설하여 총 13개 진료과와 14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기반을 바탕으로 수원의료원은 국가유공자 위탁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경기도 거주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2차 진료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쾌적한 진료환경과 사회봉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8년 7월부터 아주대학교병원과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체계적 진료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4월1일부터 영상저장전달시스템(PACS)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에도 CT, 칼라초음파, 수면내시경, 대장내시경, 기관지 내시경 등을 구비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려환자 무료진료 및 전염병환자 진료, 고아원 및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진료를 시행하여 의료원에 내원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돌보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14병상을 운영 중인 인공신장실은 투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편안한 가운데 투석이 이루어지도록 깨끗한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전용병실(4병상)을 운영하여, 말기 암 환자분들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장례식장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깨끗한 시설과 넓은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공공의료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특수질환 전문치료시설과 격리병동의 특수병동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노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병동을 운영하려는 계획과 함께, 노숙자 및 행려환자와 전염병환자의 전염예방 및 방지를 위해 격리병동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증축병동에는 노인병동과 요양병동 200병상, 정신병동 100병상, 종합검진센터, 응급의료센터가 새로이 개설되고, 갈수록 늘어나는 주차량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도 증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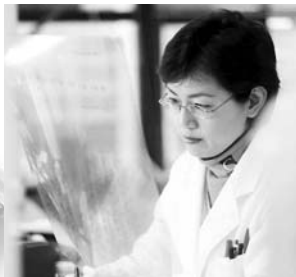
수원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여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 영 배 팀장 / Q/팀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총계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 | | |
|----------|------|-------------------|
| • 지로납입 | 전화신청 | 031-219-4000 |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 • 무통장 입금 | 거래은행 |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 | 제일은행 | 692-20-164295 |
| | 제일은행 | 692-20-166907 |
| | 한미은행 | 542-00896-248 |
| | 농협 | 116-01-060243 |
| | 국민은행 | 593501-01-082841 |
| | 우리은행 | 177-089499-13-102 |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구 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 간	2명	2,200,000원	4,200,000원
누 계	374명	1,893,175,531원	1,860,962,161원

성 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김재문	100,000	교외 후원
아라코(주)장례식장	1,600,000	추가약정
아주좋은 과일	500,000	추가 약정
교직원 분납분	3,844,000	(교직원 급여 공제)

(가나다순)
2004.9.25~10.25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내과, 간질환 공개강좌 개최

소화기내과는 지난 10월2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대한간학회가 주관하는 간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10월20일 간의날을 맞아 실시된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조성원 교수가 「만성바이러스성 간염의 관리」에 대해, 카톨릭의대 양진모 교수가 「알코올성 간질환의 관리」에 대해, 정재연 교수가 「간암의 조기진단 및 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눈의 날 기념, 녹내장 건강강좌 개최 안내

안과는 오는 11월11일 제34회 눈의 날을 기념하여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일반인을 위한 녹내장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한안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안과 안재홍 교수가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합시다」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 안과 ☎ 031-219-5260

셔틀버스 운행 노선

병원 현관 → 아주대학교 정문(글사랑 서점) → 동양부페(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TG삼보컴퓨터(아주대 삼거리) → 국토지리정보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 현관

평일 오전 8:30~ 오후 4:30(운행간격 : 30분)
토요일 · 공휴일은 운행 안함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 일요일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4310 관절염 내과 센터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남등훈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무릎,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애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 일요일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 클리닉 5979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 질환, 유전성 암 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 클리닉 5896	김찬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디스크,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해외연수중		경부 · 요부 디스크, 요실금,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일반진료	4332	월, 화, 목, 금		경부 · 요부 디스크, 요실금 등 암성통증 기타	
유방 클리닉 4744	김명옥	4743		월	유방 질환, 난치성 소화기 질환	
	정종식	4743	월, 화, 목	목*	유방 질환	★
	문태일	4743	수, 금	목*	유방 질환, 내분비 질환	★
					*은 맘포름 시술만 시행	
학습 보통 클리닉 5814	신윤미	5814		화	소아 · 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격주)	수, 금	심리검사프로그램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진료 일요일	오 전	오 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 암 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정재연	5963	금	화, 수, 목	
		왕희정	5753	금	화, 금	
		원제환	5863	해외연수중		
순환기 내과	심부전 및 판막질환 클리닉 5717	신준한	5973		화	
호흡기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월, 목	수	
알레르기 클리닉 내과	벌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월, 금		
		남동훈	5905	화	목, 금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 색소 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목	
흉부외과	하지 정맥류 클리닉 5752	최훈	5752	화, 목	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삼	5664	해외연수중		
		김선용	5858	수		
성형외과	구순 구개열 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 윤곽 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금
신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5597	월, 수, 금	월	
		김미란	5597	화, 목	화, 목	
안과	콘택트렌즈 클리닉 5673	양홍서	5671		화, 금	
		움직이는 의안 클리닉 5673	문상호	5670		화(2주, 4주)
비뇨기과	요실금 클리닉 5585	최종보	5587	화, 금	수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 클리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이정근	5869	화, 목, 금		
		고석민	5869			
	턱관절장애 클리닉 5869	송승일	5869	수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4년11월1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은 토요일에도 특진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웨 · 담도질환	
	함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웨 · 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월, 수	위장 질환, 대장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목	간질환	★
	심성준			금	소화기질환	★
	김중수			월	소화기질환	
	최준혁	수			소화기질환	★
순환기내과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신준한	5975	월, 목	화	관막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홍교승		목	월, 困	부정맥, 심전기생리검사, 현도조절제술, 인공심박동기	
	문영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소연	5975	금	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태영	5975	금	월	고혈압, 심장질환	
	최병주	5973	화	수	고혈압, 심장질환	
	유상용	5717	월		심장혈관질환	
	안성균	5752		금	심장혈관질환	
	최정현	5973	수		고혈압, 심장질환	
호흡기내과	홍성철	5967	월, 화, 수, 목, 금	목	폐암, 감염성폐질환, 폐결핵, 만성기침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발열, 감염질환, 에이즈, 예방접종, 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중환자치료, 폐암, 폐결핵	
	박주현		목, 금	월, 화	만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중환자치료, 폐결핵	★
	오윤정	5968	월, 수	화, 목	호흡기질환	
내분비내과	이관우		월, 수, 금	목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정운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일본진료	5961	수		내분비대사질환(계진만 진료)	★
신장내과	김흥수	4741	월, 困,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困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정희준		화, 목		신장질환	
	송영수		수, 금		신장질환	
장애틀액내과	김효철	5992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 · 위장 · 대장 · 직장암, 각종 고형암	
	최진희	5994	수, 금	월	두경부 · 식도 · 폐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박준성	5992	월, 화	화, 목	혈액질환, 종양	
	장준호	5990	목	월, 수, 금	혈액학	
	일본진료			화, 수, 목, 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5905	困, 수, 困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남동호	5905	화	화*, 목, 금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통풍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질환, 루푸스, 통풍	
	김상하	5905	목	화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
	일본진료			월		★
내과일반	5970	월 ~ 금	월 ~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김성현	5616	화, 목, 금	困	신경계질환, 간질, 발달지체		
	배기수	5623	월, 화, 困	목	신장질환		
	이수영	5623	수, 목	困, 화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박문성	5617	월, 수	困, 금	미숙아, 신생아질환		
	정조원	5621	困, 금	월	심장질환		
	황진순		월	困, 困, 금	소아내분비 및 유전대사 질환		
	박준은		화, 困	困, 목	소아혈액 · 종양질환		
	석호정		월, 화	월, 금	소아일반질환, 알레르기 · 내분비질환		
	유재은		금	화	소아일반질환, 신생아질환		
신경과	김연희		수	목	소아일반질환, 신경계질환		
	일본진료		목	수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뇌졸중, 척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졸중, 치매		
	이필휘	5657	월, 목	화, 수	뇌졸중, 파킨슨병, 운동장애		
	일본진료	5657	수, 금	목, 금	신경계질환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영문		5810	목, 금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우울증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조울증 및 신경성 신장장애		
신유미		5812	월, 금	화,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자폐인양장애		
일본진료			화	화, 목			
피부과	이은소	5912	월, 화, 목	困(예약), 수	건선, 여드름, 배제트병(화:레이저치료)		
	김유찬		월, 화, 목	화, 困(예약)	피부종양, 화학박피술(금: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수, 금	월, 困(예약), 목	백반증, 무좀, 질속피부염 (수:레이저치료) 색소질환		
	이지연		수, 금	월, 困(예약), 금	색소성 질환 (목:레이저치료)		
외과	레이저치료			화,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일본진료	5913	월 ~ 금	월 ~ 금			
	김명욱	5761	월,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외과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서광옥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 · 직장 · 항문 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외과, 협관외과(통금 10:00~15:00 Onsite Service)	★	
	김옥환	5756	화, 목		간 · 담도 · 췌장 질환		
	한상욱	5754	수, 금	월	위 · 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위수술	★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국종	5753	목		외상외과		
	윤태일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외과	김홍		수, 목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정인호	수			담도계 질환, 복강경수술		
	김봉완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급성복통		
	안상익		수		두경부 질환, 유방질환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후 11:30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 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전공	비고	
홍부외과	이철주	5749	금	화, 금	성인심장혈관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화, 목	폐·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이상수	5750		월, 수	폐·식도외과		
5752	일반진료	5750	목				
정형외과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건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금		척추외과, 족관절,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월, 금	금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조재호			월, 수, 금	소아정형(변형)교정, 기늘리는 수술, 외상	★	
	정남수			금	정형외과 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박응석	목			정형외과 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노정호	수			정형외과 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신경외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흥	5662	수	월, 수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현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해외연수중		뇌혈관 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수	수, 금		뇌종양, 뇌혈관 질환, 외상		
5664	신숙영	월	목		뇌종양, 외상, 일반 신경외과		
	허지순	5663	목	월	척추질환, 외상, 일반 신경외과		
	성형외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악안면부기형	
		박동하	토	월,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정수우		화, 수		미용성형, 체형성형(비만)	
5614	일반진료	월-금	월-금				
산부인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월, 목, 금	화, 금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흥	5594	금	화, 수, 금	부인암, 복강경		
	양정인	5593	목, 수, 금	목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불임, 습관성 유산,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수	수, 목	부인암, 비뇨부인과, 복강경		
	김미련	5643	화, 목	화, 목	불임, 복강경, 미혼여성클리닉		
	5597	일반진료	월-금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목(예약), 목(예약)	망막, 유리체, 백내장	
안재홍		5672	월, 화	금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화, 금		각막, 백내장, 외안부, 렌즈클리닉		
문찬식		화, 수(레이저 치료)	수, 금(레이저 치료)		망막, 백내장, 유리체		
5673		일반진료	월-금	월-금			
이비인후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해외연수중		중이염, 난청(유전성 난청), 인공와우, 보청기		
	정연훈	5742	화(신성클리닉, 목(이정중))	금	난청, 어지럼증, 인공와우, 귀종양		
	김철호	5746	월, 목	수(수음클리닉)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화, 금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	
	오정훈	수	월, 목		비염, 부비동염	★	
	5747	김병철	수	수, 금	비염, 부비동염		
이준호		월, 화, 목		난청, 중이질환			
일반진료	월-금	월-금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5585	최종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오동근	수, 목	월		남성과학, 요로결석, 요실금		
	김지훈	월	화, 금		비뇨기 종양(암)		
일반진료	금	수, 목					
재활의학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수, 목	화,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사 재활		
	5802	김신영	6440	화*	월, 수, 금	소아재활,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사경클리닉	★
	윤승현	월, 금	화, 수, 목		노인재활, 근골격계 재활, 스포츠손상재활		
일반진료	화	목					
지방사외과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 질환 중재적 치료		
	5823	원재환	5863	월, 수, 금		혈액순환장애치료, 혈액관류, 하부혈액순환치료	★
	5823	일반진료	5145	수, 금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5884	월-금	월-금	종 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5884	오영택	5884	월-금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5884	강승희	5884	해외연수중		종 양(뇌종양, 육종, 경위방사선치료)	
핵의학	5933	윤적남	5947	월-금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5933	윤준기	5947	월-금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신장내과	5644	이경중	5645		화	직업성 질환, 직업성인간공학	
	5606	박재범	5295		목	직업성 질환	
	5644	일반진료	5644		월-금	직업성 질환	
가정의학	5953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5953	박재범	5957	화, 금	월, 수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5953	김범택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5953	안병훈	화	목		비만, 갱년기, 골다공증	
	5953	정재훈	목	월		갱년기, 골다공증	
일반진료	4808	월-금	월-금				
치과	5869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악안면기형(주걱턱), 임플란트	★
	5869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인공치아보철, 심미보철, 잇몸질환	
	5869	유성근	5869	수*, 목	월, 수, 목, 금	치열교정, 악안면기형	
	5869	송승일	5869	화, 수*, 목*, 금	화*, 목*	턱관절 장애, 임플란트	★
	5869	신혜진	5869	월*, 화*, 목, 금	월*, 목, 금	심미수복, 신경치료, 치아미백	
5869	일반진료	5869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오후는 초진 가능 *는 별도 예약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야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의학과	6005	조준필	6005	월, 수		수	외상외과, 응급질환	
	6005	정윤석	6005	화	월, 목	화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6005	이국중	6005	금	수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6005	민영기	6005	목	화, 금	월	응급의학, 중환자의학	

토요일 특진운영 안내

토요일 외래진료는 주마다 특진의사가 바뀔 수 있으나
세부전공과 관련없이 모든 질환을 진료합니다.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는 특수진료입니다.
3. *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